리지아

Ligeia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3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Ligeia" (1838)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9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깃든 의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강인한 의지가 품은 신비는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신이란, 그 지극히 집중된 의지의 본성으로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거대한 의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의지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천사에게 굴복하거나 죽음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뿐이다. — 조셉 글랜빌.

리지아라는 여인을 처음 어떻게, 언제, 혹은 정확히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오랜 고통 탓에 기억력도 희미해졌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그 사실들을 떠올릴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진실로 내가 사랑했던 그녀의 성품과 드문 학식, 독특하면서도 평온한 아름다움, 그리고 낮게 울려 퍼지는 음악 같은 그녀의 매혹적인 언변은 너무나 꾸준하고도 은밀하게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빠져들고 말았다. 다만 그녀를 처음 만났던 곳은, 그리고 가장 자주 만났던 곳은 라인강 근처의 어느 크고 오래된, 쇠락해가는 도시였던 것 같다.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는 분명 그녀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 가문이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집안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리지아! 리지아! 외부 세계의 자극을 무디게 만드는 데 특화된 학문에 몰두해 온 탓에, 이제 내 상상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달콤한 이름, '리지아'뿐이다.

지금 글을 쓰는 와중에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스친다. 나의 친구이자 약혼녀였고, 나의 학문적 동반자이자 마침내 내 마음의 반려

자가 되었던 그녀의 성(姓)을 나는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리지아가 나에게 건넨 장난스러운 요구였을까? 아니면 내가 이 점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랐던, 내 애정의 깊이를 시험하려 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격정적인 헌신의 제단에 바친 나의 광기 어린 낭만적 공양이었을까? 그 사실 자체도 희미하게 기억날 뿐인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혹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 놀랍겠는가.

참으로, 만약 '낭만'이라 불리는 영혼이 실재한다면, 혹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자들이 말하듯 창백하고 안개 낀 날개를 가진 '아슈토펫'이 불길한 결혼을 관장한다면, 그녀는 분명 나의 결혼을 관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지지 않는 소중한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리지아라는 인물이다. 그녀는 키가 컸고 다소 가냘픈 체형이었으며, 말년에는 수척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품위 있는 태도나 정적인 여유,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탄력 넘치던 발걸음을 묘사하려 애써 보아도 결국 헛수고일 뿐이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문을 닫아걸고 서재에 있을 때, 내 어깨 위로 대리석 같은 그녀의 손이 닿으며 들려오는 낮고 달콤한 목소리, 그 사랑스러운 음악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녀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얼굴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 어떤 처녀도 그녀와 비견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아편이 선사하는 환상과도 같았다. 델로스의 딸들이 잠든 영혼 주위를 맴도는 환상보다도 훨씬 더 거칠고 신성하며, 정신을

고양시키는 환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목구비는 우리가 이교도의 고전 예술을 숭배하며 잘못 배워온 전형적인 틀을 따르지는 않았다. 베이컨 경은 모든 형태와 종류의 아름다움에 대해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썼다. "비례에 있어 어떤 기묘함이 없다면, 정교한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리지아의 이목구비가 고전적인 정형미를 갖추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참으로 '정교'하며, 그 안에 '기묘함'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불규칙함이 무엇인지, 내가 느낀 그 '기묘함'의 실체가 무엇인지 찾아내려 애써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나는 높고 창백한 이마의 윤곽을 살펴보았다. 결점 하나 없이 완벽했다. 그토록 신성한 위엄을 지닌 이마에 '차갑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 일인가! 피부는 순백의 상아와 견줄만했고, 이마의 너비와 평온함, 관자놀이 위쪽의 완만한 굴곡은 당당했다. 그리고 까마귀처럼 검고 윤기가 흐르며 풍성하게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은 호메로스의 수식어인 '히아신스 빛깔'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섬세한 콧날의 윤곽을 살펴보았다. 히브리인들의 우아한 메달 조각에서나 보았을 법한 완벽함이 그곳에 있었다. 매끄러운 표면의 질감, 매부리코로 향할 듯 말 듯 한 미묘한 경향,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을 대변하는 듯 조화롭게 굽은 콧망울까지 모두 같았다.

달콤한 입술도 유심히 보았다. 그곳은 참으로 천상의 모든 것이 승리한 듯한 모습이었다. 짧은 윗입술의 장엄한 곡선과 부드럽고 관능적인 아랫입술, 장난스럽게 패인 보조개와 생기를 머금은 빛깔까지. 그녀가 평온하고 차분하면서도 그 무엇보다 환희에 찬 미소를 지을 때면, 그 미소 위로 쏟아지는 성스러운 빛줄기를 치아들이 놀라울 정도로 눈부시게 반사해냈다.

턱의 형태도 면밀히 살폈다. 그곳에서도 나는 그리스적인 부드러운 너비와 유연함, 그리고 위엄과 풍만함, 영성(靈性)을 발견했다. 아테네의 아들 클레오메네스가 꿈속에서나 보았을 법한 아폴론 신의 윤곽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리지아의 커다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눈동자만큼은 아주 먼 고대의 유물 속에서도 본보기를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내 사랑하는 이의 그 눈 속에, 베이컨 경이 언급했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눈은 우리 인류의 일반적인 눈보다 훨씬 컸음이 분명하다. 누르자하드 계곡 부족의 가젤 같은 눈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만했다. 하지만 리지아의 그 독특한 눈매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오직 간헐적인 순간, 즉 감정이 격해지는 찰나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뜨거운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지상을 초월했거나 지상과는 별개인 존재의 아름다움처럼 느껴졌다. 터키 설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후리(Houri)의 아름다움 말이다.

눈동자의 색은 더없이 찬란한 검은색이었고, 그 위로는 길게 뻗은 칠흑 같은 속눈썹이 드리워져 있었다. 윤곽이 약간 불규칙한 눈썹 또한 같은 빛깔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눈에서 발견한 '기이함'은 눈의 형태나 색깔, 혹은 광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결국 그것은 눈빛, 즉 표정의 문제였다.

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 그저 소리에 불과한 이 단어 뒤로 숨어버리곤 한다. 리지아의 눈빛이라니! 나는 그 눈빛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뇌했는가! 한여름 밤 내내 그 심연을 헤아려 보려 얼마나 처절하게 애썼던가! 내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 깊숙한 곳, 데모크리토스의 우물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알아내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 눈! 크고, 빛나며, 신성하기까지 한 그 눈동자들! 그 눈은 나에게 레다의 쌍둥이 별이 되었고, 나는 그 별을 경배하는 가장 독실한 점성술사가 되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지닌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함 중에서도, 이 사실만큼 전율을 일으키는 것은 없다. 아마 학교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오래전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해 내려 애쓸 때, 기억의 문턱까지 다다랐음에도 결국 끝내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 말이다.

나 역시 리지아의 눈을 집요하게 살피며, 그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직전까지 다가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의미

가 손에 잡힐 듯 다가왔으나, 끝내 내 것이 되지 못한 채 결국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이하다, 오, 이 얼마나 기묘한 수수께끼인가!) 나는 세상의 가장 흔한 사물들 속에서 그 눈빛과 닮은 유추의 고리들을 발견했다.

리지아의 아름다움이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성소에 머물듯 자리 잡은 이후, 나는 물질 세계의 수많은 존재로부터 그녀의 크고 빛나는 눈동자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켰던 것과 같은 감정을 이끌어내곤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정의하거나 분석할 수도, 심지어 똑바로 응시할 수도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인식할 뿐이었다. 빠르게 자라나는 덩굴을 살필 때도, 나방이나 나비, 번데기, 혹은 흐르는 시냇물을 가만히 바라볼 때도 그 감정을 느꼈다. 대양에서도, 떨어지는 유성에서도 그 감정을 느꼈다. 유난히 나이 든 노인들의 눈빛에서도 느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중에서도 한두 개는 그 감정을 일깨웠다. 특히 거문고자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이중성이 있고 변화무쌍한 6등급의 어느 별을 망원경으로 면밀히 관찰할 때 나는 그 감정을 분명히 느꼈다. 현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소리나, 책의 구절을 읽을 때도 그 감정은 내 안을 가득 채웠다.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나는 조셉 글랜빌의 저서에서 읽은 어떤 구절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 문장이 (그저 기이한 표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누가 알겠는가?) 나에게 늘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안에 죽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그 활력 넘치는 의지의 신비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신이란 그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만물에 스

며들어 있는 거대한 의지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천사에게도 죽음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그간의 일을 되짚어 보며, 나는 영국의 도덕주의자가 남긴 이 구절과 리지아의 성격 사이에서 어떤 먼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의 사고나 행동, 혹은 언어에서 느껴지던 그 강렬함은, 아마도 그녀가 지닌 거대한 의지의 결과물이었거나 적어도 그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을 것이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류하는 동안, 그 의지는 다른 방식으로는, 혹은 더 직접적인 증거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욱 그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여인을 통틀어, 겉으로는 차분하고 늘 평온해 보이던 리지아만큼이나 격정이라는 거친 독수리에게 격렬하게 사로잡힌 이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길이 없었다. 다만 나를 즐겁게 하는 동시에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눈동자가 기적처럼 커질 때,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마법 같은 선율과 조절된 음조, 명료함과 평온함을 띠며 울려 퍼질 때, 그리고 그녀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거친 언어들이 지닌 맹렬한 에너지—그 차분한 말투와 대비되어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던 그 에너지—를 통해서만 그 깊이를 짐작할 뿐이었다.

나는 리지아의 학식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그녀의 지식은 방대했다. 여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다. 고전 언어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유럽의 현대 언어들에 비추어 보아도 그녀가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 학계에서 자랑하는 난해

한 주제들 중 가장 존경받는 주제를 가져온다 해도, 리지아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아내의 성품 중 유독 이 한 가지 측면이, 왜 이제야 뒤늦게 내 주의를 끌게 된 것인지 참으로 기이하고도 전율이 느껴질 따름이다!

나는 그녀의 지식이 여인에게서는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덕적, 물리적, 수학적 과학의 그 넓은 영역을 모두 섭렵하고 성공적으로 마스터한 남자가 과연 세상에 존재하기나 하는가? 당시의 나는 지금처럼 명확히 깨닫지 못했다. 리지아가 쌓아 올린 학문적 성취가 거대하고 경이롭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만 나는 그녀가 가진 무한한 우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결혼 초기 시절 내가 가장 열중했던 형이상학적 탐구라는 혼돈의 세계 속에서 아이 같은 신뢰를 품고 그녀의 인도를 따랐을 뿐이다.

그녀가 내 곁에서 공부에 몰두할 때, 나는 얼마나 거대한 승리감과 생생한 기쁨,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천상적인 황홀경을 느꼈던가. 그녀는 내가 거의 구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달콤한 전망을 조금씩 내 앞에 펼쳐 보였다. 그 길은 길고 화려하며 아직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미답의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마침내, 감히 범해서는 안 될 만큼 신성하고도 귀중한 지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몇 년 뒤, 근거 있고 확고했던 나의 기대가 날개를 달고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 내가 느낀 슬픔은 얼마나 사무쳤겠는가! 리지아가 없었다면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어

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녀가 읽어 주는 글만으로도, 우리가 몰두해 있던 형이상학의 수많은 신비가 생생하고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가 사라지자, 황금빛으로 일렁이던 글자들은 토성의 납처럼 탁하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탐독하던 책장 위로 그 눈동자가 비치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다.

리지아가 병들기 시작했다. 그 형형한 눈동자는 지나치게, 너무나도 찬란한 광휘를 내뿜으며 타올랐고, 창백한 손가락은 무덤가에 놓인 밀랍처럼 투명하게 변해갔다. 높게 솟은 이마 위로 푸른 정맥은 그녀의 부드러운 감정의 파동에 따라 격렬하게 부풀었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녀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다. 나는 죽음의 사자 아즈라엘에 맞서 정신적으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정적인 아내인 그녀의 저항은 나의 그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그녀의 엄격한 성품을 보아하니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사람이라 믿었건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그림자와 맞서 싸우며 보여준 그 맹렬한 저항은 그 어떤 말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그 가련한 광경을 보며 고통에 겨워 신음했다. 그녀를 달래고 싶었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삶을 향한, 삶을 향한, 오로지 삶을 향한 그녀의 광기 어린 갈망 앞에서 위로와 이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 순간, 격렬한 영혼의 몸부림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겉으로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점점 더 낮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녀가 나직하게 내뱉은 그 말

들에 담긴 격정적인 의미를 굳이 되짚고 싶지는 않다. 나는 홀린 듯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선율, 즉 필멸의 존재는 결코 알지 못했던 갈망과 염원이 들려올 때, 나의 머릿속은 어지럽게 휘청거렸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그녀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이에게 사랑이란 결코 평범한 감정이 아닐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애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온전히 깨달은 것은 오직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였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감정을 쏟아내곤 했다. 그 헌신은 단순한 열정을 넘어 거의 숭배에 가까울 정도였다.

이토록 절절한 고백을 들을 만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었던가. 하물며 그녀가 그 고백을 쏟아내던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저주를 받아야 했던 내 죄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더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두겠다. 리지아가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졌을 때, 아아, 그것은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과분한 사랑이었으나, 나는 마침내 그녀의 갈망이 지닌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빠르게 사라져 가는 생명을 향한, 미친 듯이 간절한 갈망이었다.

그 격정적인 갈망, 생명을 향한 그토록 절박하고 격렬한 욕망을 나는 도저히 글로 묘사할 수도,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다. 오직 생명을 향한 그 갈망뿐이다.

그녀가 떠나던 날 밤, 자정이 되자 그녀는 나를 단호하게 곁으로 불러 세웠다. 그러고는 며칠 전 자신이 직접 지었다는 시 구절을 다시 읊어보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녀의 뜻에 따랐다.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보라, 외로운 노년의 세월 속에 찾아온 축제의 밤을! 날개를 달고 베일을 쓴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 앉아 있다. 눈물에 젖은 채 극장에 모여든 그들은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연극을 지켜본다. 그사이 오케스트라는 천체의 음악을 불규칙한 숨결로 내뱉고 있다.

하늘 위 신의 형상을 한 광대들이 낮게 중얼거리며 웅얼대고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그들은 그저 꼭두각시일 뿐, 형체 없는 거대한 존재들이 명령하면 왔다 갔다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불길한 존재가 콘도르의 날갯짓으로 무대를 휘저으며 배경을 이리저리 바꿔 놓을 때마다,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 기괴한 연극이라니! 오, 분명 잊히지 않을 것이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군중에게 쫓기며, 영원히 제자리를 맴도는 굴레 속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저 연극을 말이다. 광기와 죄악, 그리고 공포가 이 극의 영혼을 이루고 있으니!

하지만 보라, 가짜 패주가 벌어지는 혼란 속으로, 기어 다니는 형체가 침입한다! 무대의 고독을 뚫고 꿈틀거리며 나타난, 핏빛의 괴물! 그것은 꿈틀댄다! 꿈틀댄다! 치명적인 고통을 내뿜으며! 배우들은 그 괴물의 먹잇감이 되고, 인간의 피로 물든 그 해충의 송곳니 앞에서 천사들은 흐느낀다.

꺼진다—불빛이 꺼진다—모두 꺼진다! 떨리는 형체들 위로, 장례식의 수의와 같은 커튼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내려앉는다. 창백하고 초췌한 천사들이 일어나 베일을 벗으며 선언한다. 이 연극은 '인간'이라는 비극이며, 그 주인공은 정복자 벌레라고.

"오, 신이시여!"

내가 이 시구를 다 읊었을 때, 리지아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듯 두 팔을 허공 높이 치켜들었다.

"오, 신이시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나이까? 이 정복자는 단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또한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 강인한 의지가 품은 신비로운 비밀을 누가, 누가 알 수 있겠나이까?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나약해지지 않는 한, 천사에게도 죽음에게도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 기운이 다했는지, 하얀 팔을 힘없이 떨구며 죽음의 침상으로 엄숙히 돌아갔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녀의 입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글랜빌 구절의 끝맺는 말을 다시금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연약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천사에게도 죽음에게도 결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는다."

그녀는 죽었다. 슬픔에 짓눌려 먼지처럼 바스러진 나는, 라인강 변의 어둑하고 쇠락해가는 도시에서 홀로 느끼는 황량함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부족함이 없었다. 리지아는 내게 보통의 필멸자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으니까. 그리하여 몇 달간 지치고 목적 없는 방랑을 이어가던 나는, 아름다운 영국 땅에서도 가장 거칠고 인적이 드문 곳 중 한 곳에 있는 어느 수도원을 사들였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그곳을 수리해 머물기 시작했다. 건물의 침울하고 쓸쓸한 장엄함과 영지의 야생적인 모습, 그리고 그곳에 깃든 수많은 애달프고 유서 깊은 기억들은, 나를 이 외딴 오지로 몰아넣은 철저한 고립감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비록 푸른 이끼가 내려앉은 수도원의 외관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나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변덕을 부리며 내부만큼은 왕실을 능가하는 화려함으로 꾸몄다. 어쩌면 슬픔을 달래보고자 하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허영심을 품어왔던 나는, 이제 슬픔에 잠겨 노망이 든 사람처럼 그 취향을 다시 불러냈다. 아, 화려하고 기괴한 휘장과 엄숙한 이집트식 조각, 거친 처마 장식과 가구들, 그리고 금실을 수놓아 마치 베들럼 정신병원에나 있을 법한 카펫들을 보며, 사람들이 내게서 시작된 광기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편의 굴레에 갇힌 노예가 되어 있었고, 내가 하는 일과 내리는 명령조차 꿈의 색채에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일일이 늘어놓지는 않겠다. 오직 그 단 하나의 방에 대해서만 말하려 한다. 정신이 혼미해진 순간, 나는 제단 앞에서 나의 신부이자 잊지 못할 리지아의 후계자로 금발에 푸

른 눈의 트레메인의 로위나 트레바니온 영애를 맞이했다. 그 방은 영원히 저주받은 곳이었다.

그 신방의 건축 양식과 장식 중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 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토록 사랑받던 처녀이자 딸이었던 이가 머무는 이 화려한 방의 문턱을 허락했을 때, 오만하기 짝이 없던 신부의 가족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나는 이 방의 세부 사항을 아주 상세히 기억한다고 말했으나, 정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슬프도록 건망증이 심한 편이다. 게다가 이 방의 기괴한 장식들은 어떤 체계나 질서도 없이 늘어놓은 것이라 기억에 남기조차 어려웠다.

방은 성곽 형태의 수도원 높은 탑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오각형 모양의 넓은 공간이었다. 오각형의 남쪽 면 전체에는 창문이 단 하나 있었는데, 베네치아에서 온 거대한 통유리창이었다. 납빛으로 색이 입혀진 이 단일 판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나 달빛은 방 안의 물건들 위로 섬뜩한 광채를 뿌렸다. 이 거대한 창문의 윗부분에는 오래된 덩굴이 격자무늬를 따라 탑의 육중한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침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참나무로 된 천장은 매우 높고 둥근 아치형이었으며, 반(半)고딕 양식과 반(半)드루이드 양식이 뒤섞인 거칠고 기괴한 문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이 우울한 아치형 천장의 가장 중앙 부분에는 긴 고리로 된 금색 사슬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그 끝에는 같은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향로가 달려 있었다. 사라센 양식의 문양이 새겨진 그 향로에는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었는데, 그 구멍 사

이로 형형색색의 불꽃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방 안 곳곳에는 동양적인 형태의 오토만 의자와 황금 촛대들이 놓여 있었다. 인도식 양식의 낮은 침대도 보였는데, 단단한 흑단으로 조각된 그 침대는 신부의 침상이었으며 머리 위로는 수의를 덮는 천 같은 캐노피가 드리워져 있었다. 방의 다섯 모퉁이에는 룩소르 건너편 왕들의 무덤에서 가져온 듯한 거대한 검은 화강암 석관들이 세워져 있었고, 오래된 석관 뚜껑에는 아득한 옛날의 조각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 방의 장식 중 가장 환상적인 것은, 아아, 슬프게도 커튼의 드리움 속에 숨어 있었다. 비정상적일 만큼 높고 거대한 벽면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두껍고 묵직한 태피스트리가 거대한 주름을 잡으며 걸려 있었다. 이 태피스트리는 바닥에 깔린 카펫으로도, 오토만 의자와 흑단 침대를 덮는 덮개로도, 침대의 캐노피로도, 그리고 창문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화려한 곡선의 커튼으로도 쓰인 동일한 재질이었다.

그 재질은 가장 호화로운 금사 직물이었다. 직물 위에는 지름이 1피트 정도 되는 아라베스크 문양들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아주 새카만 색으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러나 이 문양들은 오직 특정한 지점에서 바라볼 때만 진정한 아라베스크의 형태를 띠었다. 아주 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오늘날에는 흔히 쓰이는 기법을 사용해 문양의 모습이 계속 변하도록 만든 것이다.

방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문양은 그저 단순하고 기괴한 형상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겨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은

서서히 변해갔다. 방문객이 방 안에서 위치를 옮길 때마다, 그는 노르만족의 미신 속에 등장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도사가 꿈속에서 마주할 법한 끔찍한 형상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커튼 뒤로 강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닥치도록 인위적으로 장치해 둔 덕분에, 이 환상적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다. 그 바람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기괴하고 불안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이런 대강당에서, 그리고 이런 신혼방에서, 나는 트레메인의 여인과 함께 결혼 첫 달의 불경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 시간들을 나는 그리 큰 불안함 없이 지나보냈다. 아내가 나의 격렬하고 변덕스러운 성미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나를 피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모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나를 괴롭히기보다 오히려 즐겁게 했다. 나는 인간이라기보다 악마에 가까운 증오심으로 그녀를 혐오했다.

나의 기억은 (아, 얼마나 강렬한 후회와 함께였던가!) 사랑스럽고, 고귀하며, 아름다웠던, 그러나 무덤에 잠든 리지아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그녀의 순결함과 지혜, 그 고결하고 천상적인 성품, 그리고 열정적이고 맹목적이었던 사랑을 추억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은 리지아가 가졌던 그 어떤 불꽃보다도 더 뜨겁고 자유롭게 타올랐다.

나는 습관적으로 아편의 굴레에 묶여 지냈기에, 아편이 불러오는 환상 속에서 격정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대곤 했다. 고요한 밤중에, 혹은 낮 동안 계곡의 은밀한 구석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마치 죽은 그녀를 향한 나의 거친 갈망과 엄숙한 열정, 그리고 소멸할 듯

한 갈증이 그녀를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올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녀가 떠나버린 그 길 위로, 아, 만약 가능하다면 영원히 그 길 위로 말이다.

결혼한 지 두 달째가 시작될 무렵, 로위나 트레바니온 영애는 갑작스러운 병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그녀를 괴롭히는 열병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반쯤 잠든 혼미한 상태에서 그녀는 탑실 안팎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움직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 소리와 움직임이 그저 그녀의 환상에서 비롯되었거나, 혹은 방 자체가 주는 기괴한 분위기 탓이라고 결론지었다. 다행히 병세는 점차 호전되어 마침내 건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격렬한 병마가 다시 그녀를 고통의 침상으로 몰아넣었다. 원래도 허약했던 그녀의 몸은 이번 발작 이후 결코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그 시점부터 그녀의 병은 매우 위태로운 양상을 띠었다. 병은 무서운 속도로 재발했고,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진찰해도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뿌리 뽑을 수 없을 만큼 만성적인 질환이 그녀의 체질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아주 사소한 공포에도 쉽게 동요했다. 그녀는 이전에도 언급했던 그 소리들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말했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벽에 걸린 태피스트리 사이로 기이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이다.

9월이 저물어 가던 어느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이 괴로운 문제를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방금 불안한 잠에서 깨어난 참이었고, 나는 초조함과 막연한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흑단 침대 옆 인도식 오토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몸을 약간 일으키더니, 당시 자신이 들었으나 나는 듣지 못한 소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보았으나 나는 인지하지 못한 움직임에 대해 간절한 낮은 속삭임으로 이야기했다. 벽걸이 휘장 뒤로 바람이 급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그 숨소리와 벽에 비친 형상의 미세한 변화가 그저 평소처럼 바람이 몰아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번진 죽음 같은 창백함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임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을 듯 위태로워 보였고, 부를 만한 하인도 곁에 없었다. 나는 의사들이 처방해 둔 가벼운 와인이 담긴 디캔터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내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서둘러 움직였다.

그런데 향로의 불빛 아래로 발을 내디딘 순간,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두 가지 일이 내 주의를 끌었다. 먼저 무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체가 내 몸 곁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어 향로가 내뿜는 화려한 빛이 쏟아지는 황금빛 카펫 한가운데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보았다. 그것은 천사 같은 형상을 한, 희미하고 불분명한 그림자였다. 마치 유령의 그림자라고 상상할 법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과도한 양의 아편 때문에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거의 개의치 않았고 로위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와인을 찾아 방을 가로질러 돌아온 나는 잔에 와인을 따라 정신을 잃어가는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다행히 그녀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는지 직접 잔을 받아 들었다.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근처 오토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바로 그때, 카펫 위 침대 근처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위나가 와인을 입술로 가져가려던 찰나, 나는 보았다. 아니, 보았다고 꿈을 꾼 것일지도 모른다. 방 안의 공기 중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샘이 솟아오르기라도 한 듯, 선명한 루비색을 띤 커다란 액체 방울 서너 개가 잔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이다.

만약 내가 정말로 그것을 보았다면, 로위나는 보지 못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와인을 삼켰다. 나는 결국 그녀에게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결국 그 모든 것은 공포와 아편, 그리고 깊은 밤의 분위기 때문에 병적으로 예민해진 그녀의 생생한 상상이 만들어낸 환각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루비색 방울이 떨어진 직후, 아내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밤, 하인들은 아내를 무덤으로 보낼 채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나흘째 밤, 나는 아내를 신부로 맞이했던 그 기괴한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 곁에는 수의에 싸인 아내의 시신만이 놓여 있었다. 아편이 불러온 환영들이 그림자처럼 내 눈앞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불안한 눈길로 방 구석에 놓인 석관들과 제멋대로 드리워진 휘장, 그리고 머리 위 향로에서 일렁이는 다채로운 불꽃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지난밤의 상황이 떠올랐다. 내 시선은 향로의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곳, 예전에 희미한 그림자의 흔적을 보았던 그 지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더 이상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내쉬며, 침대 위에 창백하고 뻣뻣하게 굳은 채 누워 있는 아내의 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리지아에 관한 수천 가지 기억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수의에 싸인 아내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마치 거센 홍수처럼 내 마음을 덮쳐왔다. 밤은 깊어갔다. 오직 하나뿐인, 지극히 사랑하는 이를 향한 비통한 생각으로 가슴을 채운 채, 나는 로위나의 시신을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자정이 지났을 수도, 혹은 그보다 이르거나 늦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또렷한 흐느낌이 들려왔고, 나는 상념에서 깨어나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소리가 흑단으로 만든 침대, 즉 죽음의 침대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했다. 나는 미신적인 공포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귀를 기울였으나,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시신에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폈지만, 아주 미세한 움직임조차 감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아무리 희미했을지언정 분명히

소리를 들었고, 내 영혼은 깨어나 있었다. 나는 결연한 의지로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이 수수께끼를 풀 만한 어떤 징후가 나타나기까지는 여러 분이 흘러갔다. 마침내 변화가 보였다. 뺨과 움푹 들어간 눈꺼풀의 가느다란 혈관을 따라,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며 거의 알아채기 힘든 정도의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필멸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감이 엄습했다. 심장은 멎는 듯했고, 앉아 있는 나의 사지는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하지만 마침내 의무감이 나를 다잡아 평정심을 되찾게 해주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장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로위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더는 의심할 수 없었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탑은 하인들이 거주하는 수도원 건물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 분 동안 방을 비우지 않고서는 하인들을 부를 방법이 없었는데, 차마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위태롭게 맴도는 그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눈꺼풀과 뺨에서 혈색이 사라지더니, 대리석보다 더 창백한 빛이 감돌았다. 입술은 죽음의 참혹한 표정을 짓듯 두 배로 쪼그라들고 말려 올라갔다. 시신의 표면에는 불쾌할 정도로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죽음 특유의 사후 경직이 즉각 찾아왔다. 나는 나를 깨웠던 그 소파 위로 몸을 떨며 쓰러졌고, 다시금 리지아에 대한 격정적인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 시간이 흘렀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침대 근처에서 들려오는 모호한 소리를 나는 다시 한번 감지했다. 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것은 한숨이었다. 나는 시신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분명히 보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말이다. 잠시 후 입술이 이완되면서, 진주처럼 하얀 치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지배하던 깊은 경외심 사이로 경악스러운 감정이 휘몰아쳤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내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의 이마와 뺨, 그리고 목에는 은은한 홍조가 돌고 있었다. 온몸에는 느껴질 정도의 온기가 퍼졌으며, 심장에서는 미세한 박동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나는 더욱 열을 올리며 그녀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관록과 의학 서적에서 얻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관자놀이와 손을 문지르고 씻기며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갑자기 혈색이 사라지고 박동이 멈췄다. 입술은 다시 죽은 자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시신은 마치 며칠 동안 무덤 속에 머물렀던 것처럼 차가운 냉기와 검푸른 빛, 극심한 경직과 움푹 팬 윤곽을 띠며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다시 리지아의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내가 몸서리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다시금 흑단 침대 쪽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날 밤의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굳이 세세하게 늘어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회색빛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 끔찍한 부활의 드라마가 어떻게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는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매번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발작은 더 완강하고,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죽음처럼 보일 만큼 깊어만 갔다.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형상이었으며, 그 사투가 끝날 때마다 시신의 모습은 내가 알 수 없는 기괴한 변화를 일으키곤 했다. 이제 결론으로 서둘러 넘어가겠다.

그 무시무시한 밤의 대부분이 지나갔다. 죽어 있던 그녀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그 무엇보다도 절망적이고 참혹한 소멸의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나는 이미 저항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포기한 채, 오토만 위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휘몰아치는 격정적인 감정들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뿐이었다. 그 감정들 중 극도의 경외심은 아마도 가장 덜 무섭고, 가장 덜 파괴적인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체가 움직였다.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차게 움직였다. 생기의 빛깔이 이례적인 활력을 띠며 얼굴 위로 떠올랐고, 굳어 있던 사지는 이완되었다. 눈꺼풀이 여전히 무겁게 감겨 있고, 수의와 관 속의 천들이 여전히 시신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나는 로위나가 죽음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다고 꿈이라도 꿀 뻔했다.

설령 그때까지도 그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는 의심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 존재가 눈을 감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치 꿈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위태

롭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수의에 싸인 형체는 방 한가운데를 향해 대담하고도 명확하게 움직여 왔다.

나는 떨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 형체의 분위기와 체구,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환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치며 나를 마비시켰고, 나를 돌처럼 차갑게 굳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유령 같은 형체를 응시할 뿐이었다. 머릿속은 미친 듯이 어지러웠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몰아쳤다.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인이 정말 살아있는 로위나란 말인가? 정말 로위나일 수 있을까?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트레메인의 로위나 트레바니온 영애가 정말 저 여인일까?

아니, 내가 왜 의심을 하는 것일까? 입술을 감싼 붕대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저것이 살아있는 트레메인의 영애가 내뱉는 숨결이 섞인 입술이 아닐 리 없지 않은가. 뺨을 보라. 생기 넘치던 시절처럼 장밋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래, 저것은 분명 살아있는 트레메인의 영애가 가진 아름다운 뺨일 것이다. 건강할 때처럼 보조개가 패인 저 턱 또한 그녀의 것이 아닐까? 하지만 병을 앓는 동안 키가 더 커진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형언할 수 없는 광기가 나를 덮쳤다.

나는 단숨에 달려가 그녀의 발치에 닿았다. 내가 손을 대려 하자 그녀는 움츠러들었고, 머리를 칭칭 감고 있던 소름 끼치는 수의가 풀리며 머리에서 흘러내렸다. 그러자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방 안의 휘몰아치는 공기 속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한밤중 까마귀의 날개보다도 더 검었다!

이윽고 내 앞에 서 있는 형체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적어도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나는 비명을 질렀다. "절대로, 절대로 틀릴 리 없어. 이 크고, 검고, 격정적인 눈동자는… 내가 잃어버린 사랑, 나의 여인, 리지아 영애의 눈이야!"